

四方顛倒描法 研究¹⁾

-宿踐諸衙圖를 중심으로-

송 인 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1. 서론

1-1 연구목적

건축그림²⁾은 건축사고를 담고있는 표상체계(the system of representation)이다. 르네상스시대에 창안되고 체계화된 투시도(Scientific Perspective)는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을 원근법의 수단을 통하여 재현하는 도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시대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상징한다. 1920년대의 엑소노메트릭 역시러시아의 슈프레마티즘(Suprematism)과 구성주의 건축(Constructive architecture in the Soviet Union)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상징적인 표현방식³⁾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듯 투시도법과 엑소노메트릭은 각각 그 시대의 건축을 표상하고 있다.⁴⁾ 이 연구는 그 미학과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그림 역시 우리 전통건축을 표상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축그림의 여러 가지 도법 중 하나인 사방전도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법에 함축된 개념을 읽어내고자 한다. 그림으로써 사방전도묘법이 전통건축의 구성원리와 아름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도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는 조선시대 후기 관리였던 한필교(韓弼敎, 1807~1878)가 봉직했었던 서울 소재 관아를 화공을 시켜 그리게 했던 화첩이다. 그는 1838년에 제용감(濟用監) 부봉사(副奉事)로 부임하여 관직을 시작한 후, 1878년 공조참판(工曹參判)을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도성내의 주요관아를 두루 근무하였다. 제용감 호조(戶曹) 종묘서(宗廟署) 사복시(司僕寺) 선혜청(宣惠廳) 종친부(宗親府) 도총부(都摠府) 공조(工曹) 모두 여덟 관아의 건축그림이 실려있고(표1참고),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관아명 소재지 부임일자과 관직이 기록되어있다.⁵⁾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하버드엔칭도서관(Harrard University, Yenching Library)에 소장되어있다. 이 연구는 서울학연구소에서 출판한 ‘서울의 옛지도’(이찬·양보경 편)에 수록된 도

1) 이 논문은 1998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2) 건축그림은 architectural drawing에 해당하는 우리말이다. 건축도면과 건축도 등의 표현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건축사 실로만 구성된 건축도면 뿐 아니라 회화에 가까운 위계그림을 포함여 건축그림으로 표현하였다.

3) I. Fraser · R. Henmi, Envisioning Architecture, VNR 1994, p53

4) 엑소노메트릭은 고전주의 건축의 위계적 질서와 정면을 강조하는 표현방식인 투시도와 대조적으로 중립적인 공간을 표상하며 건축요소들 사이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도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이 화첩에는 관아 그림에 이어서 그가 외직으로 근무했던 평안도 영유현, 황해도 재령군 서흥부 신천군, 전라도 장성부, 경기도 김포군의 지도도 실려있다. (이찬·양보경, 서울의 옛지도, 159쪽)

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숙천제아도의 여덟 장 관아그림이 갖고있는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여덟 장의 관아그림이 한 화원(畫員)의 손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같은 도법과 같은 표현방식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사방전도묘법의 원리와 표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숙천제아도는 그림의 연대가 확실하고,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아를 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서울 옛 지도와 1912년 지적도등을 통해 방위와 주변 도시맥

락을 확인하고, 건축그림에 표현된 내용을 건주어 볼 수 있다.

연구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는 기존에 건축역사연구와 미술사연구에서 거론되어 왔던 건축그림과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사방전도묘법을 다른 건축도법 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숙천제아도의 각 건축그림을 관찰하고 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사방전도묘법의 도법과 표현방식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여덟 장의 관아그림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개념화된 분석그림(다이아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1. 숙천제아도의 여덟장의 관아도⁶⁾

관아 명칭	부임일자	관직	위치	주요 전각과 기능
제용감 (濟用監)	1838년 (戊戌十二月二十四日)	부봉사 (副奉事)	중부수진방 (在中部壽進坊)	궁중에 필요한 모시, 마포, 가죽, 인삼 등을 진헌하고, 사역되는 의복 옷감의 염색 직조등을 담당하던 관아
	1839년 (己亥六月三十日)	상서원부직장 (尙瑞院副直長)	*현재 수송동146-2(종로구청자리)	
호조 (戶曹)	1839년 (己亥六月三十日)	좌랑(佐郎)	중부 정청방(在中部澄淸坊)	호구(戶口) · 공부(貢賦) · 전토 및 식량과 기타 재화 · 경제에 관한 정무(政務)를 맡아보던 중앙 관청.
	1876년 (丙子三月初二日)	참의(參議)	*세종로86(전기통신공사 부근)	
종묘서 (宗廟署)	1839년 (己亥十二月二十九日)	영(令)	종묘(宗廟)	침묘(寢廟)와 정자각(丁字閣)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아
사복시 (司僕寺)	1843년 (癸卯五月十六日)	판관(判官)	중부수진방(在中部壽進坊)	궁중에서 필요한 말을 기르고, 궁중의 가마, 외양간과 목장 등을 맡아 보던 관아
	1855년 (乙卯十一月二日)	첨정(僉正)	*현재 수송동146 (이마빌딩,대림빌딩자리)	
선혜청 (宣惠廳)	1861년 (辛酉十一月初九日)	낭청(郎廳)	남부훈도방(在南部)	대동법실시에 따라 대동미, 포, 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1862년 (壬戌三月三十日)	성주목사 (星州牧使)	*남창동, 남대문과 남대문시장 사이)	
종친부 (宗親府)	1865년 (乙丑八月初七日)	전부(典簿)	북부관광방(在北部 觀光坊 碧洞)	왕가의 족친(族親) 관계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1866년 (丙寅十一月二十四日)	전첨(典籤)	*경복궁 동편 기무사터	
도총부 (五衛都總府)	1878년 (戊寅正月十九日)	부총관 (副總官)	창덕궁선인문안 (昌慶宮宣仁門內)	중앙군인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
공조 (工曹)	1878년 (戊寅三月二十三日)	참판(參判)	광화문앞서편 형조아래 (光化門前西 刑曹下)	산림·소택(沼澤)·공장(工匠)·건축·도요공(陶窯工)·야금(冶金)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 중앙 관청

6) 서울의 옛지도(이찬 양보경)에 수록된 숙천제아도의 그림과 해설, 1912년 지적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 홈페이지(서울시사편찬위원회, <http://history.seoul.go.kr>)에서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2. 옛 건축그림과 건축도법

2-1. 기존의 도법연구와

‘사방전도묘법’이라는 이름

건축그림에 대하여 이미 건축사와 미술사의 분야에서 여러 선행연구가 있어왔다.⁷⁾ 기존의 연구서에 많은 건축그림들이 수록되어있는데, 여러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도법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가장 규범적인 연구로 안희준교수의 「옛 궁궐그림」을 들 수 있다. 그는 궁궐그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옛 건축그림을 크게 ‘정면부감도법(正面俯瞰圖法)’과 ‘평행사선도법(平行斜線圖法)’의 두가지 도법으로 분류하고있다. ‘정면부감도법’은 ‘조대비사순칭경진하도(趙大妃四旬稱慶陳賀圖)’와 같이 건물의 정면관(正面觀)을 위주로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표현하는 구도(構圖)로, ‘평행사선도법’은 ‘동궐도(東闕圖)’와 같이 건물을 위에서 옆으로 빗겨 보고 평행사선을 이루도록 표현하는 구도로 정의하고있다.⁸⁾ 그리고 정면부감구도계의 궁궐도를 설명하면서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와 같이 주위의 집들을 펼쳐 그리는 방식을 별도로 ‘사방전도식묘법(四方顛倒式描法)’⁹⁾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있다. 이 두가지 계열 구도와 세가지 도법의 이름은 각각 그림의 특징적인 모습과 그리는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그림 연구의 초석으로 삼을 만하다.

한편 김왕직 박사는 ‘인평대군방전도’와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와 같은 건축그림은 ‘입면전개형 배치도’, ‘동궐도’와 같은 그림은 ‘투상도형 배치도’, 그리고 ‘동궐도형’과 같은 그림을 ‘평면전개형 배치도’라 부르고 있다.¹⁰⁾ 집을 짓거나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채가 놓이는 배치방식이며, 아울러 칸수와 지붕 모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 건축그림을 배치도라는 이름으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건축그림들이 배치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붙여진 도법명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왕에 서양도법의 배치도가 의미하는 도면형식과 우리 건축그림의 형식은 개념적으로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다. 배치도라는 용어는 입면도와 단면도와 평면도와 함께 정투영도(Orthographic drawing)의 한 종류로,¹¹⁾ 정투영도라는 이름에 이미 사물을 재현하는 방식, 즉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함축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와 같은 서양식 도면명칭을 통하여 우리 건축그림을 부를 때, 자칫 서양도법의 정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¹²⁾

그런 점에서 정면부감도법과 사방전도묘법, 그리고 평행사선도법이라는 표현은 기왕 서양도법의 이름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을 연상시켜준다는 점에서 호감이 간다. 정면부감도법은 건물의 정면관(正面觀)을 위주로 위에서 내려다 본 부감(俯瞰)의 구도(構圖)로 표현된다. ‘정면’과 ‘부감’이라는 두 단어가 도법의 기본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사방전도묘법은 주위의 집들을 펼쳐 그리는 방식으로, ‘사방’과 ‘전도’라는 두 단어에 도법이 함축되어있다. 그리고 ‘묘법’은 다소 회화적인 표현기법을 ‘도법’은 좀더 계산된 표현기법을 암시하고 있어, ‘정면부감도법’이 ‘사방전도묘법’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7) 건축사 분야의 연구로 ‘박익수’의 「朝鮮時代 營建儀軌의 建築圖 研究」(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신동철의 「朝鮮時代 宮繕禮制와 관련한 建築圖說 研究」(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8), 김왕직·김홍식의 「朝鮮時代 建築配置圖의 圖法과 思想에 관한 研究」(건축역사연구 제7권2호, 1998년6월), 강영기의 「전개도법으로 그려진 조선시대 건축그림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송인호의 「건축그림에 의한 내앞중가의 해석」(「전통중거 계획개념 및 설계요소에 관한 연구II: 사례연구」, 대한주택공사연구소, 1997), 건축문화 기획특집 「우리나라의 옛 건축그림」(송인호외, 1997년9월호) 등이 있다. 미술사분야에서는 안희준의 「옛 궁궐그림」(대원사, 1997)과 박정혜의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일지가, 2000)등의 저서가 있으며, 지리학연구의 성과로 이찬·양보경의 「서울옛지도」(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등의 저서에서도 건축그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8) 안희준, 「옛 궁궐 그림」, 32-33쪽

9) 개화식묘법(開花式描法)또는 사방전도식묘법(四方顛倒式描法)으로 제안하고 있다.(안희준, 앞의 책, 37쪽) 이 연구에서는 다른 도법명칭과 운을 맞추어 사방전도묘법으로 부르고자한다.

10) 김왕직·김홍식, 「조선시대 건축배치도의 도법과 사상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95.6

11) 정투영도는 물체와 관찰자 사이에 투명한 화면을 설정하고 물체를 화면에 직각방향으로 투영한 그림이다.

12) ‘투상도형 배치도’라는 도법이름 역시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엑소노메트릭도법(axonometric)을 ‘투상도’로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엑소노메트릭은 정투영도를 바탕으로 서로 직교하는 세 축(xyz)을 따라 그리는 도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상도형 배치도’라는 명칭 역시 어색하거니와, 우리 건축그림의 의미를 담아내기엔 충분치 못하다고 여겨진다.

표2.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옛 건축그림¹³⁾

연대순	그림 제목	제작년도	크기(cm)	출처	그림내용
1	영희전도 (永禧殿圖)	成宗5 1474년	-	국조속오례의서예 (國朝續五禮儀序例)	영희전의 배치와 전각형태
2	인평대군방전도 (麟平大君坊全圖)	仁祖조 1650년대	183.1x90	-	인평대군의 저택 석양루와 효종의 잠저 조양루의 배치와 전각형태
3	소쇄원도 (瀟灑園圖)	1755년4월 하순추정	36x25.5x2 양각목판	-	소쇄원의 정자와 정원 배치도
4	수은묘 (垂恩廟圖)	英祖40 1764년	45x22.5	수은묘영건청의궤 (垂恩廟營建廳儀軌)	사도세자묘, 수은묘의 영건공사보고서에 수록된 배치도
5	본아전도 (本衙全圖)	英祖42 1766년	35.1x45.6	태상지 (太常誌)	제사와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관청 봉 상시(또는 태상시)의 연역과 구성 업무 내용을 정리한 책, 태상지 첫머리에 수 록된 건물배치도
6	경모궁도설 (景慕宮圖設)	正祖4 1780년	36.1x23.2	궁원의 (宮園儀)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과 능원 영우원 의 의식절차(儀節)를 수록한 책에 포함 된 경모궁 배치도
7	사직서전도 (社稷署全圖)	正祖 7 1783년	42x30.4	사직서의궤 (社稷署儀軌)	사직단에 제사지내던 관청, 사직서의 배치도
8	단유도설 (壇壝圖說)	正祖 7 1783년	42x30.4	사직서의궤 (社稷署儀軌)	사직서전도의 중앙부분, 단유장내(壇壝 牆內)의 세부 배치도
9	본아전도 (本衙全圖)	正祖12 1788년	35.7x22.5	탁지지 (度支志)	호조의 제반 사례와 연혁을 모아 엮은 책, 탁지지의 1책 첫부분에 실린 배치 도
10	본아전도 (本衙全圖)	正祖12 1788년	35.2x46	추관지 (秋官志)	형조의 업무사례를 정리한 책, 추관지 의 책머리에 수록된 배치도
11	문희묘정당이하제처도 (文喜廟正堂以下諸處圖)	正祖13 1789년	45x34	문희묘영건청등록 (文喜廟營建廳騰錄)	창의궁에 지어진 문희제사(정조의 죽은 왕세자)의 묘의 배치와 전각형태
12	구례오미동가도 (求體五美洞家圖)	1804년 이전추정	-	-	구례 운조루의 배치와 전각형태
13	옥호정도 (玉壺亭圖)	19c 초	150x280	-	순조의 장인 김조순의 사저 옥호정의 전각배치와 경관
14	숙천계야도 (宿踐諸衙圖)	高宗15 1878년	40x60	-	한필교가 근무했던 여덟 관아의 배치도
15	영희전도 (永禧殿圖)	光武 4 1900년	45.2x33	영희전영건도감의궤 (永禧殿營建圖監儀軌)	의 첫 부분에 수록된 배치도
16	선원전도 (瑤源殿圖)	光武 5 1901년	45x32	진전중건도감의궤 (眞殿重建都監儀軌)	진전(선원전)중건의궤에 수록된 배치도

13) 강영기 석사논문의 표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와 저서에 언
급된 주요 건축그림들 중에서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건축
그림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방전도묘법을 정면부감도법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논의를 전개하고자한다. 사방전도묘법을 배치도를 바탕으로 전각의 입면을 두 방향이상 겹쳐 그린 그림으로 정의하고, 그 도법과 표현방식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자한다.

2-2.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건축그림

<표2>는 기존의 저서와 연구에 수록된 건축그림 중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주요 건축그림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정면부감도법이 조대비사순칭경진하도, 왕세자두후평복진하도(王世子痘候平復陳賀圖), 정조세자책봉의례도(正祖世子冊封儀禮圖)와 같은 궁궐행사도의 배경이 되는 궁궐을 묘사하는데 이용되었던 것과 달리, 사방전도묘법은 궁궐이나 단묘, 관아와 주택등의 배치도와 전각형태를 묘사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표에서 보듯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건축그림은 그 의도와 동기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궁궐이나 묘를 새로 건설하면서 만든 공사보고서인 영건의례에 수록된 건축배치도이다. 영희전도(永禧殿圖)와 수은묘도(垂恩廟圖)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 선원전도(璿源殿圖) 등, 권역 전체의 배치를 표현하고 각 전각의 정면을 그려넣고있다. 둘째는 관아의 연혁과 업무를 기록한 책자에 수록된 관아도이다. 추관지(秋官志) 탁지지(度支志) 태상지(太常誌) 등의 관지의 첫머리에 전체 배치도가 수록되어있는데, 전체 전각의 배치와 형태를 한 눈에 알아볼 있도록 사방전도묘법으로 묘사되어있다. 셋째 부류는 주택이나 별서의 배치와 전각구성을 표현하고있는 가도이다. 인평대군방전도나 옥호정도(玉壺亭圖), 오미동가도(五美洞家圖)나 소쇄원도(瀟灑園圖)와 같이 주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과 정원 그리고 주변 경관을 묘사한 건축그림이다.

숙천제아도는 관지에 수록된 관아도는 아니지만, 관아의 구성을 그린 건축그림이라는 점에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숙천제아도의 호조그림은 탁지지의 본아전도와 흡사하다. 탁지지의 본아전도(本衙全圖)는 1788년에 그려진 필사본이고, 숙천제아도의 호조그림은 한필교가 재직했던 1839년 이후에 그려진 채색필사본이다. 두 건축그림을 비교해 보면 숙천제아도의 호조그림이 탁지지의 본아

전도를 보고 모사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배치와 전각의 형태를 그대로 모사한 후, 담장에 문양을 넣고, 연지(蓮池)에 연을 그려 넣고 연못가의 나무를 더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채색하였다. 당상대청(堂上大廳)과 지부아문(地部衙門)등 전각과 대문의 이름도 써넣었다.¹⁴⁾

이와 같이 사방전도묘법은 건축의 구성을 보여주고자 할 때 선택되는 도법이다. 그림에 따라 표현기법과 정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전각들의 구성과 형태를 기록하려는 의도에서 그려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숙천제아도의 여덟장의 관아도 역시 자신이 재직했던 관아를 두루 기록하려는 의도에서 그려진 것으로, 그 구성과 형태를 보여주기애 적합한 도법으로 사방전도묘법이 선택된 것이다.

3. 숙천제아도의 여덟 장 관아그림 분석

3-1. 사방전도묘법의 기본구도: 영역과 정면
 선혜청(宣惠廳)(그림1-E)의 전체 영역은 네 변 모두 행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 변 행랑의 모습은 안쪽에서 본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그림 아래쪽 행랑의 오른쪽, 선혜청문동문(宣惠廳門東門)이라고 써 있는 대문이 정문인데¹⁵⁾, 이 문 역시 안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그리고 관아 내부공간은 행랑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경계가 분명한 몇 개의 단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중심영역인 상대청(上大廳, 그림2-E줄1,2칸) 영역은 마당을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전각들이 겹쳐 표현되어있다. 왼쪽 끝부분의 신대청(新大廳, 그림2-E줄4칸)영역, 그리고 위쪽에 나란히 병치된 고공방(庫貢房)등의 단위영역들도 사방으로 입면이 전도되어 묘사되어있다. 이른바 사방전도묘법으로 단위영역들을 묘사하고, 이 단위영역들이 모여서 전체 영역을 이루고 있는 구성을 잘 표현하고있다.

14) 추관지의 본아전도(형조)에는 전각의 명칭이 쓰였으나, 탁지지의 본아전도(호조)에는 이상하게 전각의 명칭이 빠져있다.
 15) 그림 아래쪽이 동쪽이고, 위쪽이 서쪽이다. 아래쪽 행랑에 문이 둘 있는데 선혜청문동문과 상동문(上東門), 위쪽 행랑에 있는 문에는 하서문(下西門)과 상서문(上西門)이라고 각각 써 있다. 1912년 지적도에서 현재 남대문과 남대문시장 사이에, 남북방향으로 긴 필지를 확인할 수 있다.
 16) 다이어그램에서 굵은 선은 담장과 행랑과 전각의 지붕면을 표현한 것이다. 정면으로 표현된 칸수를 표시하였다. 방위는 1912년 지적도를 토대로 문의 이름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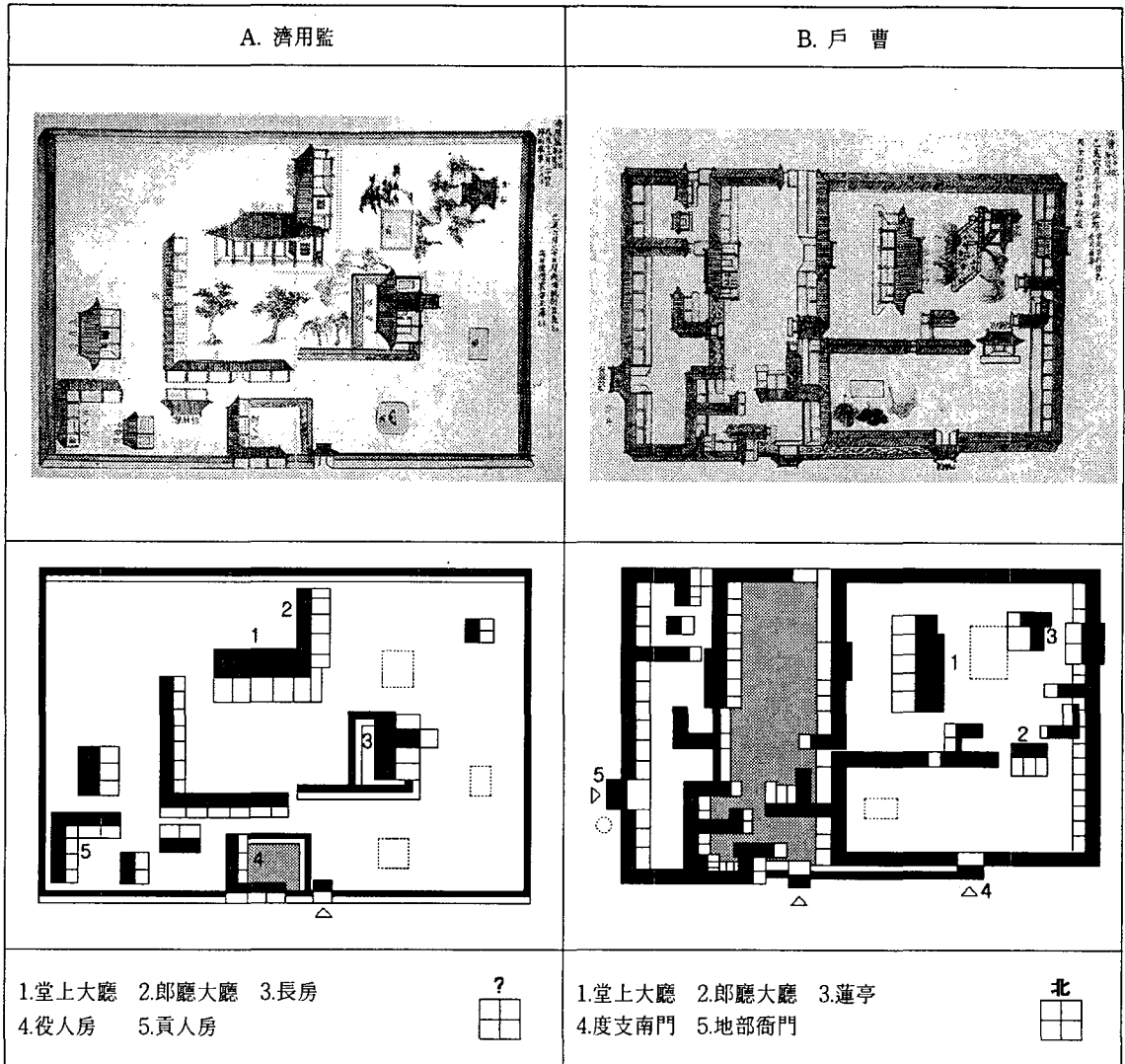


그림1-A·B 숙천제아도 관아그림과 다이어그램 16)

그런데 상대청과 강원대청(江原大廳) 사이에 놓인 행랑은 상대청 쪽에서 본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상대청 영역이 강원대청의 영역보다 위계가 높거나 그 행랑의 상대청 쪽 정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의 오른쪽 끝 부분에 있는 사령방(使令房, 그림2-E줄5칸)의 경우도 세 면은 영역의 안에서 본 모습으로, 한 면은 바깥쪽에서 본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이처럼 두 영역의 경계에 놓이는 전각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위계가 높은 영역에서 본 모습으로 묘사되고있다. 한편 아래쪽에 묘사된 하대청(下大廳, 그림2-E줄6칸)은 왼쪽으로 찢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방위로 보면 북쪽 입면이지만, 정문으로 들어서면서 바라보게 되는 정면이기 때문이다. 사방전도묘법은 마당을 중심으로 네변을 찢혀 그리는 도법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 전통건축은 여러 단위 영역이 집합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한 변은 바깥쪽에서 본 모습으로 세 변은 안에서 본 모습으로 묘사되게된다. 그 전도되는 방향은 인접 영역과의 관계와 진입방향에 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마당을 중심으로 입면이 세 면이상 찢혀 표현된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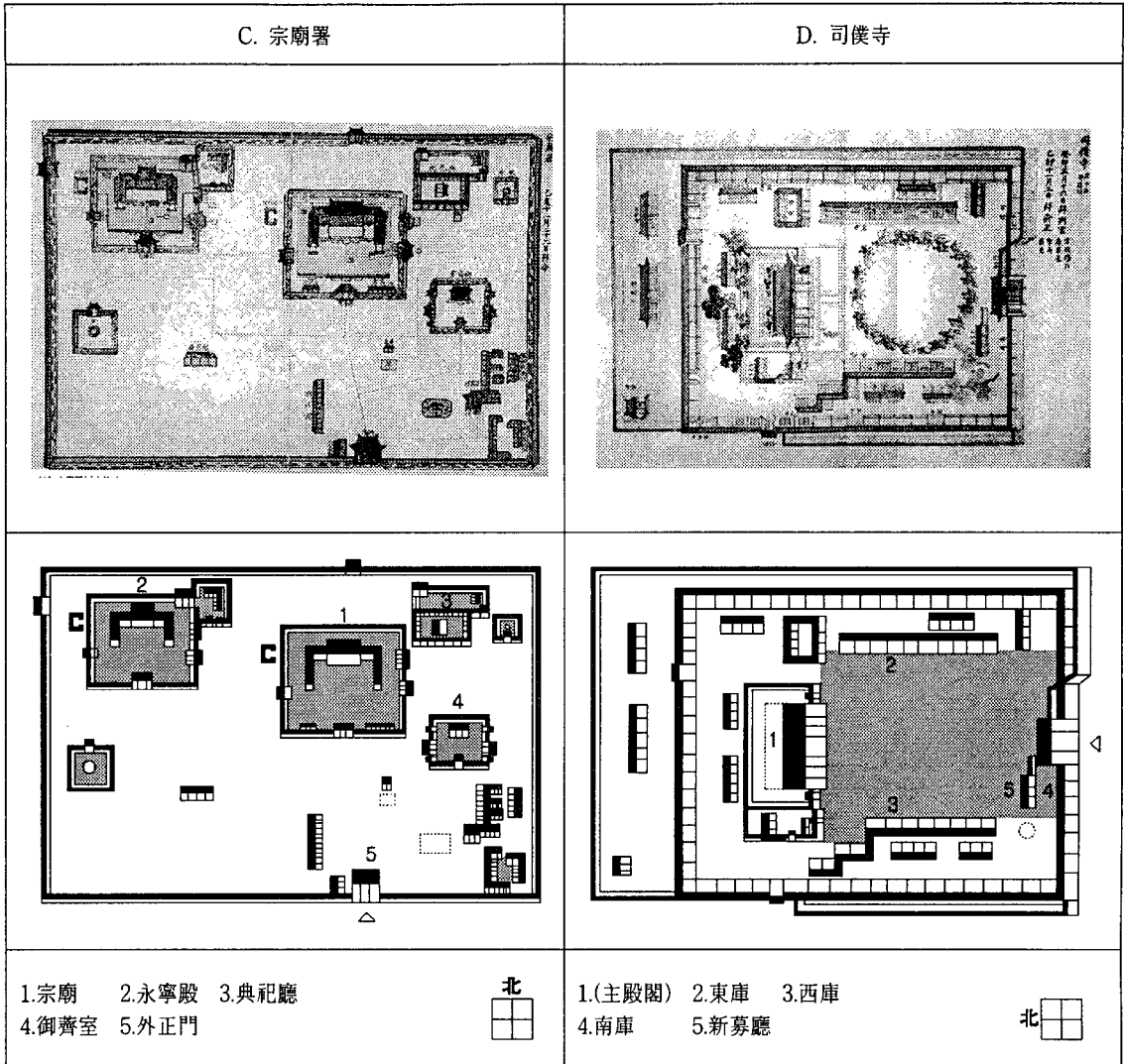


그림1-C·D 숙천제야도 관아그림과 다이어그램

라 결정된다.

종묘서 관아그림(그림1-C)에 세변과 한번의 조합되는 사방전도묘법의 표현방식이 잘 나타나있다. 개념도를 보면 종묘 전체 영역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시 그 안에 정전(宗廟正殿)영역과 영녕전(永寧殿) 영역 그리고 그밖에 전사청(典祀廳)이나 어재실(御齋室) 영역이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전체 영역의 담장은 외정문(外正門)이 있는 진입하는 쪽 한 면은 바깥쪽에서 본 모습이, 나머지 세 면은 마당에서 본 모습이 겹쳐 묘사되어 있다. 단위영역 역시 즉 진입하는 방향의 정면을 겹

쳐 표현하고, 마당에 들어서면 전면과 좌우면의 세 면을 두루 겹쳐 표현하고있다. 전각이름은 각 전각 바로 위에, 문의 경우는 아래쪽에 이름이 적혀있어 정면과 진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¹⁷⁾

한편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정면이 전도되는 방향을 통하여 공간의 흐름을 추론할 수

17) 종묘 전체영역은 사방전도묘법으로 표현하고있지만, 종묘 정전(그림2-C줄5칸)과 영희전(그림2-C줄6칸)은 정면부감도법으로 표현되어있다. 가로방향으로 놓인 전각은 정면관으로 표현되어있고, 세로방향의 전각은 위에서 본 지붕면으로 표현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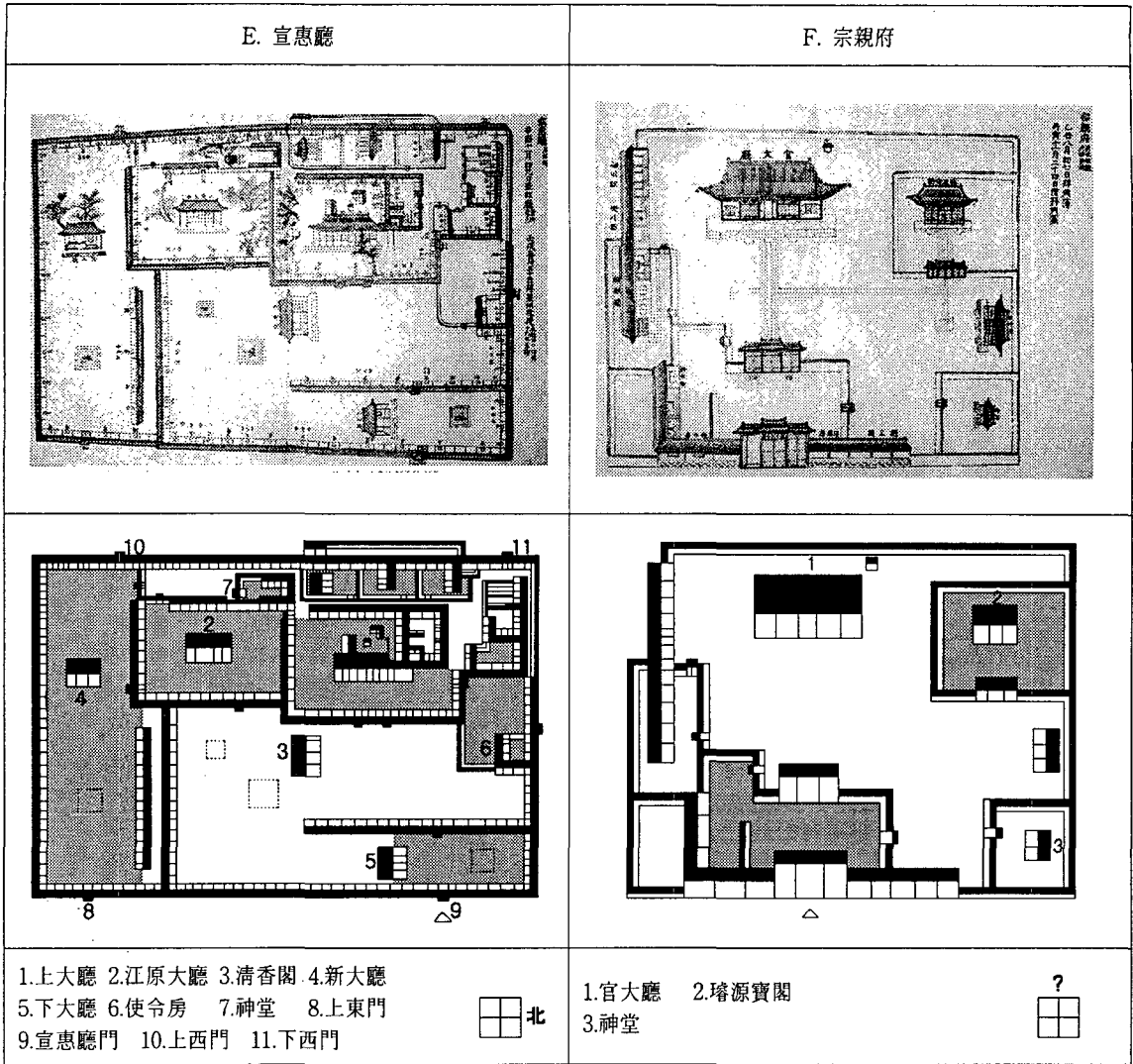


그림1-E·F 숙천제야도 관아그림과 다이어그램

있다. 제용감과 선혜청 사복시 종친부 도총부 공조의 건축그림에 각각 신당(神堂)이 그려져 있는데, 이 신당의 정면 표현이 흥미롭다. 한칸 규모의 작은 건물인데, 그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붉은 색으로 채색하거나(제용감, 선혜청 등), 문짝에 태극문양을 그려 넣어서(사복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당은 전체 배치에서 볼 때 구석부분이나, 별도로 구획된 영역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제용감의 경우 우측 상단 연못가에 신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주전각인 당상대청(堂上大廳)의 후원으로 낭청대청(郎廳大廳)과 마주보는 자리이다. 신당은 연못에서 볼 때 나무로 가려져 있으며,

뒤로 돌아 앉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즉 외곽 담장 쪽에서 돌아서 진입하게 되어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전각의 정면이 그려진 방향은 그 진입방향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각과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방전도묘법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 안을 향하고있는 세면과 밖을 향하고있는 한면의 조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영역의 표현이고, 후자는 정면의 표현이다. 사방전도묘법은 안과 밖의 양면적인 구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법이다.

3-2. 정면부감도법과 사방전도묘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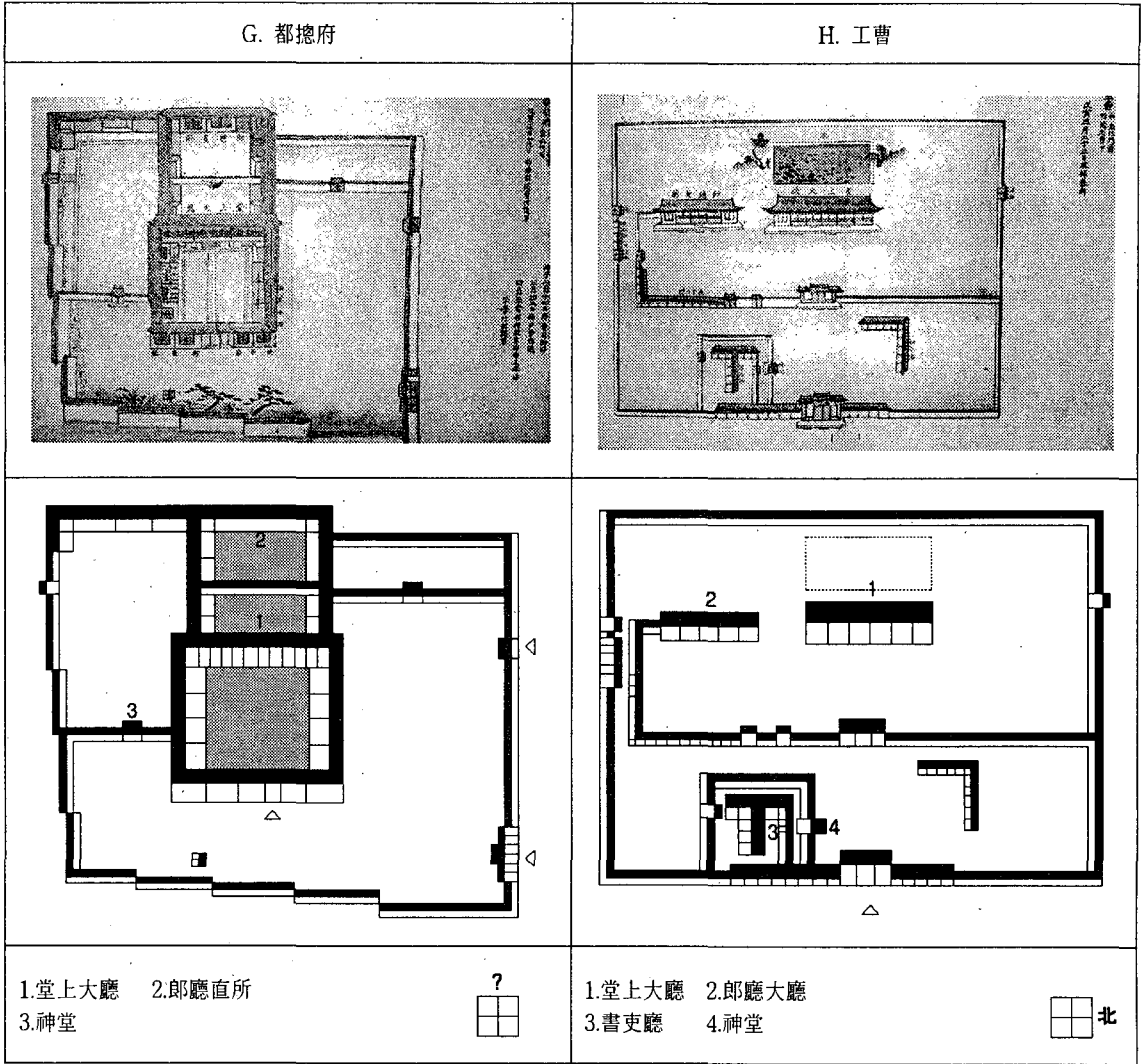


그림1-G·H 숙천제아도 관아그림과 다이어그램

: 세로방향 전각의 시점

호조(戶曹) 관아그림(그림1-B)은 네 방향으로 전각들이 짓혀져 있어 얼핏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그림2-B줄6칸) 정면부감도법으로 그려진 두 장의 그림을 마주 보도록 붙인 것이다. 육조거리에 면한 부속 영역(그림2-B줄3,7,8칸)은 오른쪽(동쪽) 위에서 바라본 정면부감도법으로, 당상대청(堂上大廳, 그림2-B줄4칸)과 연정(蓮亭, 그림2-B줄5칸) 낭청대청(郎廳大廳) 등이 있는 주 영역은 왼쪽(서쪽) 위에서 바라본 정면부감도법으로 그려져있다. 현재 그림을

기준으로 볼 때 가로방향(동서방향)으로 놓이는 행랑들은 위에서 본 지붕모습으로 표현되어있고, 세로방향(남북방향)으로 놓이는 전각들은 각각 바깥쪽으로 짓혀 그려졌다.¹⁸⁾ 그런데 오른쪽 그림 가로방향의 행랑에 끼워져 있는 탁지남문(度支南門, 그림2-B줄2칸)을 안쪽에서 본 모습으로 짓혀 그리고, 왼쪽 그림의 행랑(그림2-B줄1칸)부분도

18) 정면부감도법은 가로방향은 정면관을 중심으로 짓혀 그리고, 세로방향으로 놓이는 전각은 위에서 본 지붕모습을 그리는 도법이다. 이 호조그림은 두 장의 정면부감도법을 좌우방향으로 조합한 그림이어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호칭이 혼돈될 수 있는데, 숙천제아도에 수록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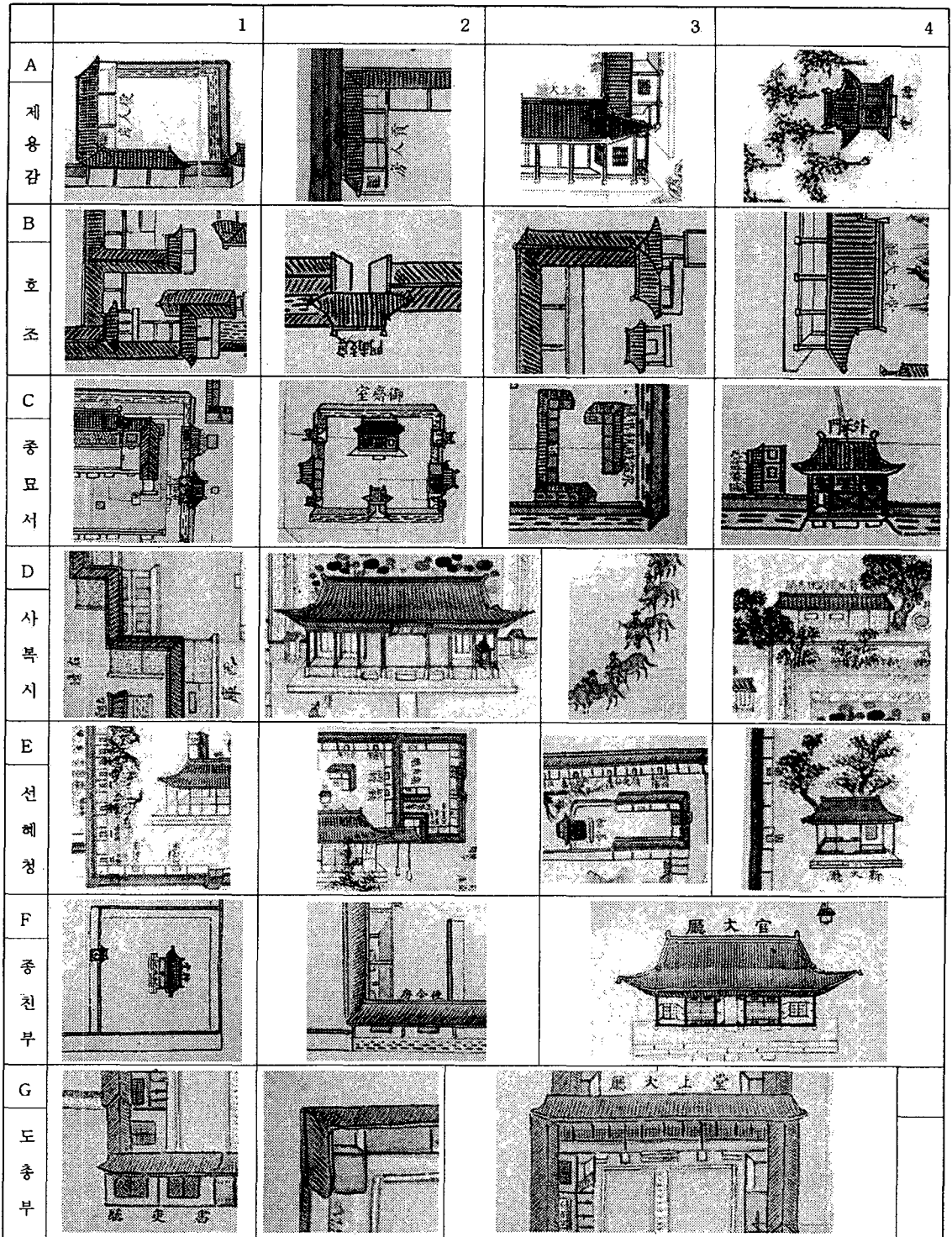


그림 2. 숙천제아도 관아그림 부분 장면

	5	6	7	8
A 계용감				
B 호조				
C 종묘서				
D 사복서				
E 선혜청				
F 중천부				
				H 공조

부분적으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동시에 걸쳐 그리는 등 부분적으로 사방전도묘법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도총부(都摠府, 그림1-G)의 전체구도는 전형적인 사방전도묘법의 구도이다. 담장으로 에워싸인 영역 안에 口자형 당상대청(堂上大廳)과 口자형 낭청직소(郎廳直訴)¹⁹⁾가 연결되어 날일(日)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각각 진입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정면을 걸쳐 그리고, 마당에 들어서면 나머지 세면은 마당을 중심으로 걸쳐 그렸다. 앞에 놓인 면이 정면이 되고, 마당에 면한 삼면이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뒤쪽의 낭청직소의 마당 가운데를 지나가는 담장도 그 원칙에 맞추어 앞쪽에서 본 모습으로 걸쳐 그려졌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세로방향으로 놓인 행각들의 표현이 모호하다. 지붕은 정면부감도법에 따라 위에서 본 지붕모습으로 표현하고, 입면은 마당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걸쳐서 표현하고 있다.(그림2-G줄1,2,3칸) 두 도법이 충돌 도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조그림과 도총부그림은 정면부감도법과 사방전도묘법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두 그림에서 보듯 두 도법은 얼핏 구별되지 않으며, 배치도를 기본으로 입면을 전도시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계열의 구도로 분류될 수 있다. 두 도법은 가로방향으로 놓이는 정면관의 표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세로방향 전각을 표현할 때 차이가 있다. 정면부감도법은 세로 방향의 전각들을 위에서 본 지붕모습으로(지붕평면도가 아니라) 표현하고 있고, 사방전도묘법은 마당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면부감도법은 눈높이에서 본 정면도와 위에서 본 지붕모습을 조합한 것이고, 사방전도묘법은 눈높이에서 본 내 장의 정면도를 진입방향과 마당을 기준으로 조합한 것이다. 결국 두 도법의 차이는 세로방향 전각을 표현하는 시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정면부감도법은 궁중행사도의 배경 건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행사가 베풀어지는 주 건물의 정면이 묘사되고, 이를 배경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빈과 하객들의 모습이 정면과 같은 방향으로 묘사되어 있다. 세로방향 전각은 행

사가 베풀어지는 영역을 한정하는 경계가 된다. 이때 세로방향 전각의 입면을 사방전도묘법과 같이 묘사할 경우, 오히려 행사 내용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위에서 본 지붕 모습으로 세로 방향의 전각을 간결하게 묘사하는 것이, 그림의 의도와 내용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로방향 전각들 사이의 간격도 행사규모와 표현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된다.²⁰⁾

한편 사방전도묘법은 가로방향의 전각과 세로방향의 전각이 만나는 부분의 표현이 복잡하고 모호하다. 평면이 卍자 모양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꺾여있을 때, 두 방향으로 그려진 입면이 겹치게 된다. 제용감의 공인방(貢人房, 그림2-A줄2칸)의 경우 세로방향의 칸수가 세 칸이지 네 칸이지 불확실하다. 평면을 바탕으로 두고 그렸다면 세 칸이지만, 입면을 기준으로 그렸다면 네 칸일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종묘서의 부속건물(그림2-C줄3칸)이나 공조의 서리청(書吏廳, 그림2-H줄8칸)의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제용감의 당상대청(堂上大廳)과 낭청대청(郎廳大廳)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만나는 부분(그림2-A줄3칸)이나, 바깥쪽으로 꺾여진 입면과 안쪽으로 꺾여진 입면이 만나는 부분(司僕寺 西庫, 그림2-D줄1칸)의 표현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두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그 전각이 마당과 맺고있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사방전도묘법은 가로방향 전각과 세로방향 전각의 정면관을 마당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도법이다. 두 방향 전각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전체 그림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각과 외부공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사방전도묘법의 그림의도이다. 그런 점에서 정면부감도법은 사방전도묘법을 토대로 변형된 도법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면부감도법은 행사의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세로방향전각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대신 부감시점에서 표현하고, 이를 정면관으로 바라본 가로방향 전각과 조합한 도법이다.

3-3. 가로방향 전각의 표현: 정면관

19) 직소(直所)-변(番)을 드는 곳. 숙직하는 곳, 직소(職所)-직무를 맡아보는 곳

20) 이에 대해서는 강영기의 “전개도법으로 그린 건축그림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1999)의 ‘제3장 인정전 일곽을 담고있는 궁중행사도’의 내용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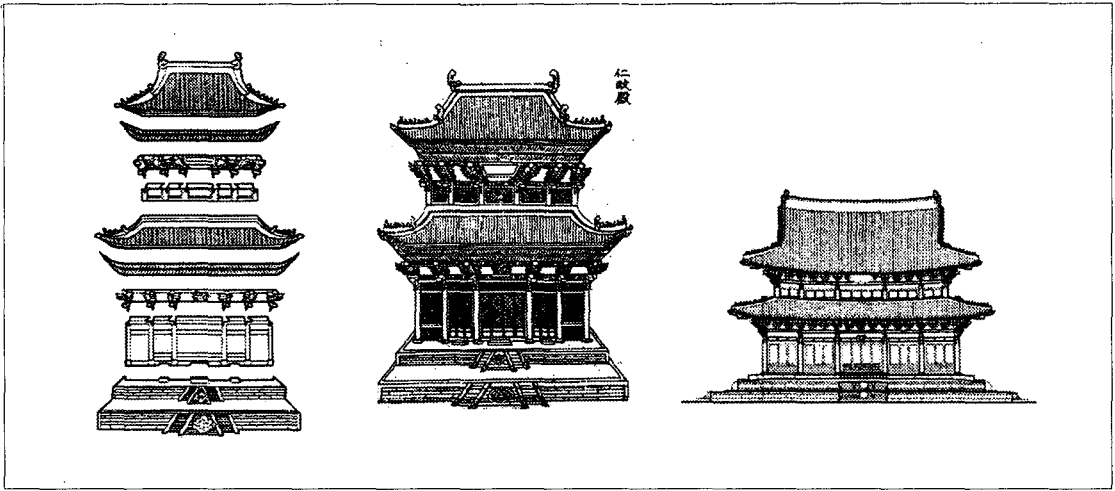


그림 3. 인정전중수도감의궤(1857)의 '인정전도'와 분석 그림 및 입면도21)

「인정전중수도감의궤(仁政殿重修都監儀軌)」에 수록된 인정전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면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서양의 도법에 따라 그린 입면도와 큰 차이가 있다. <그림3>은 인정전도(정면도)를 시점별로 해체하여 입면도와 비교한 그림이다. 인정전도는 지붕아래면 처마부분이 묘사되어있으며, 공포부분도 과장되어있으며, 현판도 아래에서 올려다 본 모습으로 사다리꼴로 표현되어있다. 한편 월대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표현되어있으며, 계단도 사다리꼴 형태로 오르면서 좁혀져있다. 한 장면에 양시와 부감의 시선이 동시에 표현되어있으며, 안쪽으로 수렴되는 선을 통하여 깊이감을 표현하고있다.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시각정보가 재구성되어 한 장의 건축그림을 만들고 있다.22) 결과적으로 인정전의 정면도는 입면도에 훨씬 수직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치수 상으로는 부정확할지 모르나, 부분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인정전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23)

정면부감도법과 사방전도묘법에서 가로방향으로 놓이는 전각은 이러한 전통적인 표현방식으로 정면24)을 묘사하고있다. 사복시의 주전각(그림2-D

2)25)을 보면, 팔작지붕 아래 처마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본 모습으로, 퇴간과 대청 기단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26) 마치 투시도처럼 앞쪽에서 뒤쪽으로 모이는 사선으로 묘사되어있다. 사복시의 정문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으로 표현되어있다. 그것은 정면관(正面觀)에 따라 전각을 눈높이정도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양시와 부감의 시선으로 바라본 장면을 한 그림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앞서 인정전도의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7)

한편 종친부의 관대청(官大廳, 그림3-F줄3칸) 역시 아래에서 올려다 본 처마 아래 부분과 위에서 내려다 본 대청의 여닫이문 모습이 동시에 묘사되어있다. 좌우 끝 칸의 여닫이문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으로 표현되어있는데, 각 칸마다 그 위쪽에서 바라 본 모습을 그려 넣은 것이 흥미롭다. 이처럼 한 전각의 표현에 있어서도 양시와 부감, 또한 여러 시점을 통하여 인지하고있는 정보를 마치 한 시점에서 바라본 듯한 장면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정면에 시지각적 체험을 종합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깊이감과 풍부함을

종류인 입면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부감과 양시의 시각에 따라 묘사된 내용을 함께 표현한 그림을 지칭한다.

25) 자료의 부족으로 전각의 명칭을 확인하지 못했다.

26) 다만 현판은 다른 정면관과 달리 올려다본 모습이 아니라 옆쪽에서 비스듬히 본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27) 한편 부속 전각들은 간략하게 표현하면서, 주 전각의 표현과 구별하고있다.

21) 강영기논문, 60쪽의 [그림24]인정전중수도감의궤(1857)의 <인정전도>분석을 참고하여 제작성한 것이다.

22) 대상을 투명한 면에 평행한 선으로 '투사(projection)'하여 그리는 정투영도의 입면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표현이다.

23) 강영기, 앞의 논문 61쪽 참조.

24) 이 글에서 '정면'은 서양도법에서 사용하는 정투영도의 한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 옛 건축그림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이다.

3-4. 화원이 그린 건축그림

: 계화(界畵)와 회화적 표현

전각들은 '계화'의 표현기법으로 자[尺]를 사용하여 반듯하게 표현되어 있다. 기단과 벽체의 기둥선이 평행을 이루는 직선들로 표현되어 있으며, 지붕선도 주 전각의 팔각지붕의 곡선부분 외에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연못과 나무와 같은 자연풍경(戶曹의 蓮亭, 그림2-B줄5칸)은 자연스러운 필치로 '산수화'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복시의 말그림(그림2-D줄3칸) 역시, 원형을 이루며 혼련하고 있는 말의 움직임이 회화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숙천제아도의 건축그림들이 화원에 의하여 그려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²⁹⁾

한편 숙천제아도의 여러 그림에서 평행사선도법으로 그려진 전각들을 발견할 수 있다. 평행사선도법은 산수화에서 전각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던 기법이다. 평행사선도법은 정면을 기본으로, 사선 방향으로 깊이감을 표현하는 도법이다.³⁰⁾ 배치도를 바탕으로 그려지는 정면부감도법이나 사방전도도법과는 그 그리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평행사선도법 역시 처마는 양시의 시점으로, 기단이나 대청부분은 부감의 시점으로 그리는 등 여러 방향의 시점이 중첩되어 있다.³¹⁾

사복시의 신당(神堂, 그림2-D줄7칸)과 신모청(新募廳, 그림2-D줄8칸) 등이 평행사선도법으로 표현

되어 있다. 선혜청의 행랑은 사방전도도법으로 묘사하고 소슬대문은 평행사선도법으로 표현함으로써(그림2-E줄5,6칸), 대문을 행랑채와 구별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사방전도도법을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입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평행사선도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산수화에서 전각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도법으로, 숙천제아도와 같은 일련의 건축그림들이 화원에 의하여 그려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4. 결론

숙천제아도는 사방전도도법으로 그려진 관아그림이다. 기존의 건축역사연구와 미술사연구를 바탕으로 사방전도도법을 정면부감도법의 범주 안에서, 배치도를 바탕으로 전각의 입면을 두 방향이 상절혀 그린 그림으로 정의하였다. 여덟 장의 관아그림을 관찰하고 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도법과 표현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사방전도도법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 안을 향하고있는 세면과 밖을 향하고있는 한면의 조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영역의 표현이고, 후자는 정면의 표현이다. 사방전도도법은 안과 밖의 양면적인 구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법이다.

둘째, 사방전도도법은 정면부감도법에 앞서는 구형식의 도법이다. 사방전도도법은 가로방향 전각과 세로방향 전각의 정면관을 마당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도법이다. 전각과 외부공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사방전도도법의 그림의도이다. 이에 견주어 정면부감도법은 행사의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정면관으로 바라본 가로방향 전각과 부감 시점으로 바라본 세로 방향 전각을 조합한 도법이다.

셋째, 사방전도도법의 가로방향의 전각은 정면부감도법과 마찬가지로 정면관으로 묘사되어 있다. 부감과 양시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이 하나의 정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정면에 시지각적 체험을 종합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깊이감과 풍부함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 옛 건축그림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이다.

네째, 전체의 구도는 사방전도도법을 취하면서,

28) 자[尺]를 사용하여 반듯하고 섬세하며 입체감 있게 그리는 중국 화법(畵法).

29) 안휘준교수는 「옛 궁궐그림」에서 각종 영건의궐에 수록된 도화서의 화원과 방외화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들에 의하여 궁궐도 등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안휘준, 앞의 책, 78-83쪽)

30) 서양에서는 이를 중국투시도(Chinese Perspective)라 부르고 있다. (I. Fraser · R. Henmi, 앞의 책 46쪽) 그런데 투시도법(perspective)을 대상과 관찰자 사이에 투명한 화면을 설정하고, 들을 있는 선이 화면에 맺히는 점들을 이어 그리는 방식이다. 얼핏 서양의 투시도를 연상케 할 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 건축그림이다. 오히려 엑소노메트릭의 한 종류로 입면도를 기본으로 일정한 각도를 갖는 평행선들로 입체를 표현하는 입면오블리크(elevation oblique)와 유사하다. 그러나 정면관의 표현이나 깊이방향 길이의 축약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31) 또한 전각을 표현할 때 정면 폭에 비하여 측면의 길이를 축약하고, 높이를 실제 길이보다 확대하여 그리고 있다.

작은 전각이나 수목이나 연못 등을 표현할 때는 평행사선도법을 사용하고있다. 이러한 표현은 조선후기 산수화의 표현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던 표현으로, 당시 숙천제아도와 같은 건축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화원들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참고문헌

1. 박익수, 「조선시대 영건의궐의 건축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2. 신동철, 「朝鮮時代 宮繕禮制와 관련한 建築圖說 研究」,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8
3. 김왕직·김홍식, "조선시대 건축배치도의 도법과 사상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7권2호, 1998년6월
4. 강영기, 「전개도법으로 그려진 조선시대 건축그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5. 안취준, 옛 궁궐그림, 대원사 1977
6. 박정혜, 「조선시대 행사도연구」, 일지사, 2001
7. 이찬·양보경, 「서울옛지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
8. 송인호외, "우리나라의 옛 건축그림", 건축문화기획특집, 1997년9월호
9. I. Fraser · R. Henmi, Envisioning Architecture, VNR 1994, p53

A study on Sabang-jeondo-myobeob, a Korean Traditional Drawing Type

Song, Inho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Eight drawings of Sukcheon-je-a-do are the architectural drawings of the government offices. These were drawn in the representation of Sabang-jeondo-myobeob. Sabang-jeondo-myobeob is one of Korean traditional drawing type, that is constructed with turned-over elevations drawn on the site plan. The analytic observation viewed in the iconographical diagrams of eight drawings led m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most typical expression of Sabang-jeondo-myobeob can be summarized as the combination of three elevations toward the inside and one elevation toward the outside. The former is expression of territoriality, and the latter is expression of the facade.

Second, in Sabang-jeondo-myobeob both elevations of crosswise direction and of lengthwise direction are described at the viewpoint of eye level. And they center around the courtyards with intent to describe the relation between buildings and the outdoor space.

Third, the facade of pavilions, disposed on the crosswise direction in Sabang-jeondo-myobeob, are described with the both viewpoint of down-view and up-view. It is the expression peculiar to Korean traditional drawings, that describes the depth and richness on the facade of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Fourth, some pavilions and landscapes are described in Pyonghaeng-saseon-dobeob, that is familiar drawing type in the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From this expression we can deduce that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drawings such as Sukcheon-je-a-do were constructed by the traditional landscape painters.